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운동의 방향

A Study on the Processes of Small Libraries Changing Sociological Role and Its Direction of Movement in Masan City

양 재 한(Jae-Han Y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3. 2000년대 :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 시기 |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V. 작은도서관 운동의 방향 |
| 2. 연구방법 | 1. 작은도서관 현황 분석 |
| II.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마산의 지역적 특성 | 2. 작은도서관의 개념정립 |
| 1. 작은도서관의 개념 | 3. 작은도서관 운동의 이념정립 |
| 2. 마산의 지역적 특성 | 4. 제도의 정비와 재원확보 |
| III.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 5.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
| 1. 1980년대 : 진보성향의 민간도서관 시기 | V. 결론 |
| 2. 1990년대 : 주민참여형 마을도서관 시기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작은도서관이 접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역할 변화과정도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변화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에 1980년대 진보성향의 민간도서관 시기, 1990년대 주민참여형 마을도서관 시기, 2000년대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 시기로 나누어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 과정을 해석하고, 그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마을도서관, 사회적 역할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 the processes of small libraries changing sociological role and its direction of movement in Masan City. The roles of small libraries are changing according to the aspects of the communities. Thus the roles of the small libraries in Masan have also changed with the various changes in Korean society. The periods are divided into three : 1980's : the appearances of civil libraries, 1990's : maeul libraries that the citizens have established and participated, 2000's : small libraries that have established from cooperation of government and private. By the three periods this paper interprets the processes of small libraries changing sociological role and its direction of movement in Masan City.

Keywords: Small Library, Public Library, Maeul Library, Sociological Role

*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yjha@cw.ac.kr)

· 접수일: 2008년 8월 21일 · 최초심사일: 2008년 8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9월 22일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구자는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오래 전부터 관찰을 계속해 오고 있다. 1993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생각이 같은 몇 분과 함께 '책의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논의한 것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찰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지역의 많은 지인들과 이 땅의 터와 때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세우는 일에 몰두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어떠한 것이며, 이에 적합한 도서관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지를 관찰하면서 작은도서관의 개념인 '마을도서관'이란 이름도 만들어 사용하였다.

도서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나의 이야기와 함께 7년 동안 창원지역에서 발로 뛰면서 관찰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작은도서관의 모습을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이란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출간한 적이 있다.¹⁾

그 이후 사회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작은도서관²⁾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2004년 6월 문화관광부가 "문화비전21 : 창의한국"에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운동을 제시한 이래 2005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6년 1월에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마을단위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정책과제로 지정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생겨날 정도로 작은도서관 만들기에 적극적이다.

작은도서관이란 명칭은 1980년대 말 관주도의 문고활동이 부진해지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단체 등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문고를 설립하면서 문고라는 명칭대신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1992년 종로도서관을 시초로 관에서도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³⁾

기존 공공도서관과는 별도로 작은도서관이란 명칭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성립과정부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왜곡되어, 도서관에 소장한 장서나 도구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었으며, 그 결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그들이 부여한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왜곡현상은 도서관 운영 면에서도 나타나

1) 양재한,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대구 : 태일사, 2000).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작은도서관이란 용어는 마을문고, 새마을문고, 지역도서관,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과 유사한 용어는 연구 진행상 필요할 때만 개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김준,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서울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2007), p.29.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교육 공간이라기보다는 학습공간으로 건립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단지 시설관리 중심의 운영과 시설확충만이 행정가들의 관심 영역이었다. 이런 와중에 공공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는 이미 지식 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의 절대부족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607개관으로 전국 3,517개 읍·면·동 가운데 17.17%만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시·구·군 단위에 대체로 1-2개의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어 생활권 단위로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장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지난 수십 년간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도서관운동을 전개하였다. 1960-70년대 마을문고 운동, 1980년대 도서관 운동, 1990년대 마을도서관 운동, 2000년대 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인과 단체가 도서관운동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또 다른 사회적장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동의 큰 축을 이뤄 온 1980년대의 마산의 진보성향의 민간도서관 운동, 그 이후 지방화시대 도래에 따른 좋은마을만들기 운동차원의 1990년대의 주민참여형 마을도서관 운동, 2000년대의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단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 운동의 성립과정을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시대별로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을 살펴본 뒤, 향후 마산지역의 작은도서관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마산지역의 사회적·역사적 변화과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을 사회사적 접근법을 통해 해석하려고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에 대한 해석은 지역사회의 변화과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성립과 역할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로 사회사적 접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작은도서관 성립과정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주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 하나는 사회사적 접근법을 사용하되 지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지방은 중앙에 종속되어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이 외면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산지역에서 진행된 작은도서관 운동을 지역사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국사회 전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II.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마산의 지역적 특성

1. 작은도서관의 개념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다만 법 제2조(정의)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의 명칭으로 문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004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다. 이 사업 평가 보고서에 작은도서관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 밀착형 독서공간이요, 문화공간이며 장차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거점 또는 분관의 의미”로 사용하였다.⁴⁾

민간부문에서는 작은도서관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작은도서관을 세워 운영하였다. 이에는 1960년대에 출발한 마을문고 운동이 있다. 마을문고 운동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독서진흥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61년 민간운동 차원에서 임대섭에 의해 시작되었다. 마을문고 운동은 주민의 독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농촌을 대상으로 한 농촌 독서운동이었으며, 근대화와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왔던 도서관 황폐화 현상을 극복하고, 문맹을 퇴치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결과 마을문고는 1970년대에 전국 3만5천개나 되는 방대한 마을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1981년 새마을운동 체제에 흡수·통합되어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⁵⁾

오랫동안 마을문고 운동을 이끌었던 이용남은 “마을문고 운동은 공공도서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열악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려는 데 궁극적인 이상을 둔 운동이므로 장차 공공도서관이 양과 질면에서 충실해지고 관외봉사 중심의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에는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흡수되어 공공도서관망을 형성, 마을단위의 최일선 조직 또는 봉사거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벌이는 소도서관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그의 주장에 따라 1960년대의 마을문고 운동은 현재 작은도서관 운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을문고가 그러했던 것처럼 작은도서관도 결코 공공도서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중이 아니며, 주민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서비스 접점이며, 자발적 주민운동의 성격이 내포된 봉사기관이라 할

4) 남영준 외,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06), p.6.

5) 이용남, “마을문고 운동 추진전략과 행태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새마을운동 체제로의 통합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2. 3), p.92.

6) 이용남, “마을문고의 이념과 원리: 공공도서관 운동의 측면에서,” 국회도서관보, 제16권, 제3호(1979), pp.63-69.

수 있다.

최근에 작은도서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의 모범적인 운영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민관협동의 사례로 잘 알려진 부천의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창원, 순천, 부산, 대전 등에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최근 나타난 작은도서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공통된 특징은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에 있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 사용하는 문고라는 용어 대신에 굳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기존 문고와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작은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이 수혜자인 동시에 지역주민이 자원봉사, 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즉 작은도서관은 '시설 중심'보다는 '운영 중심'의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지역문화의 발전, 지식의 평등화를 통한 계층 양극화 해소 등 작은도서관을 '시설'개념이 아닌 '운동'개념으로 보고 있다.⁷⁾

따라서 남영준 등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하고 있다.⁸⁾

- ① 설립주체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도서관의 3대요소인 시설, 직원, 장서를 갖추고 있으며, 도서관적인 시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비영리적으로 봉사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면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립된 소규모의 생활친화적인 독서 및 문화공간이다.
- ③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 ④ 주민의 독서습관을 신장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⑤ 지역의 공공도서관과의 협조를 도모하며, 상호대차 등 장차 지역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어느 정도 운영규모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를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상 건물면

7) 작은도서관을 운동이라고 보게 되면 이러한 운동의 취지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 공사립문고,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 어린이도서관,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나 분관 등 -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작은도서관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경우 현행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에도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법률적 규정이나 절차도 필요하지 않게 되며, 또 일정한 수혜계층에 한정될 필요도 없이 시대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면서 작은도서관의 이념적인 정의보다 규모와 기능에 의한 구체화된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 남영준 외, 앞의 글, pp.9-10.

적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등을 최소기준으로 요구하는 문고보다는 운영규모가 크고, 건물면적 80평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 사서직원 3인 이상 등을 최소기준으로 요구하는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은 규모를 말한다.

실제 2004년 복권기금지원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25개소의 평균면적은 47평, 평균장서수가 5,000책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모델은 30평 이상, 장서수 3,000권 이상 규모로 설정되어 있다. 간혹 장서수나 시설면적 등에서 공공도서관의 규모에 이른 곳도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영세한 규모에 독서, 문화활동 등을 병행하는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⁹⁾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운영규모는 공공도서관의 시설규모 80평에 미달하고, 문고로 신고된 10평 이상의 독서시설 중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과 자료를 갖춘 공사립문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향후 작은도서관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서 일정수준이란 복권기금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전례에 비추어 대략 30평 내지 40평 이상의 시설규모에 3,000권 이상의 장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마산의 지역적 특성

마산지역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일까. 대체로 청동기 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석묘 등이 현동, 구산면, 진동, 진북 등에서 조사되었고,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가 마산 현동 유적지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¹⁰⁾

마산의 도시화 과정과 반외세 투쟁, 오늘날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는 마산 나름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초 조선조 숙종 때에 대동법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영조 36년(1760년) 경상도의 세곡을 운반하기 위한 조창으로 마산창이 설치되면서 마산포는 항포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8세기 중반 이후 조창과 더불어 발달한 마산포는 중서부 경남의 곡물 집산지로서,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속에서 미곡·면포 및 명태·모시가 교환 유통되는 물산의 집산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마산은 동해의 원산, 서해의 강경과 더불어 전국 3대 수산물집산지의 하나였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수호조약 이후 1899년 5월 1일 마산은 강제적인 개항의 길을 걷게 된다. 개항이후 일본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각국 공동조계지란 이름으로 계획도시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의 신마산지역이다.¹¹⁾

9) 위의 글, pp.13-14.

10) 남재우, "한국사 속의 마산·창원," 마산·창원 역사읽기(마산 : 불휘, 2003), p.17.

11) 허정도, 근대기 마산의 도시화과정 연구 : 개항(1899년)부터 해방(1945년)까지(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2), p.50.

1910년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신마산지역뿐만 아니라 조선인 거주지역인 구마산지역까지 일본인의 영역이 되었다. 1911년 일제는 마산항의 개항을 폐쇄하고 일본과의 단독무역만을 허락하였다. 그 결과 마산은 조선의 쌀을 비롯한 각종 물자를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전진기지로 바뀌었고 동시에 일본의 소비재를 수입하는 창구로 변질되었다.¹²⁾

이에 따라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는 마산사람들의 저항도 거세져, 일본상인들의 경제적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민의소와 조선인 상공회의소를 만들고, 1919년 3월 만세운동, 이어 1920년 6월 마산지역 문화운동의 구심점으로 '마산구락부'가 결성되어 교육, 체육, 계몽, 교류활동 등을 벌여나간다. 마산인의 이러한 경험이 1960년대와 70년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자리잡게 된다.¹³⁾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마산의 3·15의거는 4·19의거의 기폭제가 되었고,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을 타도한 부마항쟁,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선언을 이끌어 낸 1986년 6월 항쟁은 마산을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이끈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사회가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이 탄생된다. 그 동안 수산물 집산지과 소상공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모순을 대변해 주는 노동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발달하였다. 마산과 창원지역의 노동자들은 1986-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모아 1987년 12월 마산, 창원 노동조합총연합을 건설하고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의 새역사를 열게 된다. 이후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결성되기까지 8년 동안 마·창노련은 지역과 전국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 전노협 건설과 사수의 주역, 민주노총 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¹⁴⁾

현재 마산의 인구는 41만이 조금 넘어서고 있다. 인구규모가 1961년 15만 명, 10년 후인 1971년 19만 5천명, 1976년 33만 8천명, 1989년 45만 명이 넘어서면서 합포구와 회원구로 분리하여 구청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점차 인구가 감소하여 2000년 말부터 구청제를 폐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마산은 개항 105년이 된 오래된 항구도시, 3·15의거 등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성지, 항만물류 중심도시, 문화관광도시, 중부 경남의 상업,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지, 향후 로봇산업과 같은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¹⁵⁾

12) 남재우, 앞의 글, pp.24-25.

13) 위의 글, pp.26-28.

14) 김하경, 내 사랑 마창노련, 상(서울 : 갈무리, 1999), p.13.

15) 마산시 홈페이지 <<http://www.masan.go.kr>>.

Ⅲ.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마산지역은 역사적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반외세적이며, 부정과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의 성지로 일찍부터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노동운동, 일선교사들의 참교육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의 작은도서관은 이들 진보성향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마산 남성동에 민간도서관 책사랑이 성립되었으며, 1990년대에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지방마다 좋은마을만들기운동이 주민참여에 의해 활성화 해 나간다. 이때 나타난 도서관이 내서지역의 푸른내서주민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내서마을도서관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작은도서관 운동이 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채택되면서 지역마다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나타난 도서관이 경남대 작은도서관이다.

이에 시기별로 이들 도서관이 성립된 사회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별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1980년대 : 진보성향의 민간도서관 시기¹⁶⁾

가. 성립과정의 사회사

한일수호조약 체결 후 마산을 포함한 서울, 부산, 인천, 목포 등 각지에 일본인들이 대거 입국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마산지역에서 최초의 세운 도서관은 1913년 4월 ‘마산서적종람관’으로, 이 도서관은 민족의 계몽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지역 유지들이 세운 근대적 개념의 민간도서관이다. 1924년 마산노동동우회에서 이발소에 ‘노동문고’를 설치하였고, 1926년 창원청년회에서 ‘창원간이도서관’을 설치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들을 위한 계몽운동을 계속하였다.¹⁷⁾

일제는 마산지역의 민간도서관 설립운동을 저지하면서 자신들의 사상과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이 1928년 설립된 마산부립도서관이다.¹⁸⁾ 그 이후 1954년 5월 12일 마산시 추산동에 마산시립도서관이 개관된다.¹⁹⁾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마산지역의 유일

16) 마산의 책사랑운동이 창원지역의 마을도서관운동과 마산지역의 내서마을도서관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역할 변화과정과 운동의 방향에 관한 연구이므로 본인의 선행연구인 창원지역의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에 관하여 다른 다음의 연구에서 1980년대 책사랑운동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양재한,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대구 : 태일사, 2000), pp.62-80].

17) 전세중, “문화운동공간, 집현전과 책사랑,” 마산·창원 역사읽기(마산 : 불휘, 2003), p.302.

18) 김포옥, 광복이후 한국공공도서관사 연구 : 일제하 공공도서관 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p.7.

19) 그 이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1963년 11월 1일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88년 6월 30일 마산 산호동의 현재

한 공공도서관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학생들의 공부방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제도의 하나로 그 존립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민간차원의 근대적 민간도서관 운동이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1978년 경남대학교 최초의 이념동아리인 사회과학연구회를 발족시켰으며, 여기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도서관 운동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8년 8월 12일 마산YMCA강당에서 경남양서보급회의 창립총회가 있었다.²⁰⁾²¹⁾

경남양서보급회가 나아갈 방향을 당시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박진해는 경남양서보급회의 기관지 성격인 「집현전」 창간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제건설에 따른 고도성장을 지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총 매진하는 과정에서 이 고장은 많은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술한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급격 팽창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형편없는
저임금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일방 이른바 호화맨션 아파트와 유흥접객소의 현저한 등장을 목격한다.
... 더 이상 뿌리를 뽑힌 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고장의 부끄러운 전략을 방치해 둘 수 없다.²²⁾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경남양서보급회는 단순한 서점이나 독서모임이 아니었다. 당시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한 운동단체 성격이었다.

이 단체는 마산시 장군동에 집현전이라는 직영서점을 개설하고, 회원과 일반이용자를 위한 양서구매, 회원을 대상으로 한 도서대출, 사회봉사활동, 장학활동, 문화예술활동, 독서운동 및 악서추방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쳐나간다. 경남양서보급회의 이러한 활동은 재정난 등으로 1년 만에 끝나지만 이 모임의 회원들은 그해 10월 부마항쟁의 중심인물로 참여하였고, 1988년에 창립한 민간도서관 책사랑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²³⁾

그러던 중 1987년 전두환 정권의 말기에 직선제 개헌을 위한 6월 항쟁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로부터 6·29 선언을 얻어내었다. 6월 항쟁의 결과 얻어낸 6·29선언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일선교사들의 참교육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대중들의 사상의 흐름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이전에는 소위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읽었던 좌파적 사상과 지식을 담고 있는 책들이 노동자를 비롯하여 일반시민들도 읽혀지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 군이

위치로 이전 개관하였다. 조례개정으로 1991년 마산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 전세중에 의하면, 당시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53명이었으나 경남양서보급회 기관지 성격인 〈집현전〉 창간호에 128명의 회원명단이 수록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직업은 대학생이 가장 많고, 교사, 노동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의 순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21) 전세중, 앞의 글, p.305.

22) 위의 글, p.304에서 재인용.

23) 위의 글, pp.305-307.

형성되었지만 기존의 공공도서관인 마산시립도서관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사상과 지식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사정이 사상이나 지식의 유통을 제한하는 책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 오늘날보다 더욱 엄격했기 때문이다. 이에 진보적 성향의 마산·창원지역 이용자 요구를 바탕으로 마산의 중심지인 남성동에 회원제도서관 형태의 민간도서관인 '책사랑'이 1988년 6월 25일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의 도서관이 마산의 '책사랑', 울산의 '글사랑', 진주의 '책마을', 남해의 '책사랑 나눔터' 등 경상남도 도내 전역에 걸쳐 자료중심의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마산 남성동에 위치한 '책사랑'은 마산과 창원의 진보적 성향의 노동자, 교사,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당시 책사랑의 성격에 대해서는 초창기 책사랑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²⁴⁾ 참여한 사람들은 참교육에 참여한 교사,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상과 지식에 있어서 좌우의 스펙트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종류의 자료들을 다수 비치하여 제공하게 된다.

열린 도서관을 꿈꾸며 출발한 민간도서관 책사랑은 1988-89년경 마산과 창원의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 8,000여명의 회원을²⁵⁾ 확보하며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해나간다. 그러나 1989년 하반기부터 불기 시작한 공안정국은 책사랑의 주요한 고객이던 노동자, 교직원 노조관계자, 운동권 학생 등의 이용을 위축시켰으며, 교장단 회의에서는 책사랑이 불온집단이라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일선학교에서는 책사랑 이용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데올로기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 받는 우리사회에 사상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도서관을 지향한다는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책사랑 소장 일부도서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실무를 맡고 있던 전세중이 구속된다.

1992년에 들어서면서 책사랑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환경이 바뀌게 된다. 이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92년 대선에서 민주세력이 패배함에 따라 진보적 지식에 대한 열정이 수그러들고, 상업적 도서대여점의 등장에 따라 책사랑 이용률의 퇴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책사랑은 기존의 민주도서관 운동에 대한 궤도수정을 하게 된다.

24) 책 사랑이 창립할 당시인 1988년 6월부터 일정기간은 조직의 정비기간으로 보아 <책사랑> 창간호를 발간한 11월을 기준으로 참여한 사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만(풀뿌리 문화연구회 대표), 이인식(교사, 경남 교사신문 편집장), 안종복(교사, 마산교협 회장), 이승형(교사, 마산교협 사무국장), 김상범(교사, 이상걸(문화운동), 남두현(경남대학교 강사), 임혜숙(MBC PD, 경남여성회 회장), 도난실(경남신문 기자), 석진국(변호사), 이찬호(노동자, 공동택주노조 사무장), 성남식(노동자, 동경시리론 근무), 최두영(대학서림 경영), 전세중(운영간사)(자료: <책사랑> 제1호(1988. 11), 권두)

25) 전세중은 책사랑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0년 6월 30일 구속된다. 구속될 당시 진술서에 나타난 이용회원은 학생(초·중·고·대학생 포함) 2,400명, 노동자 3,000여명, 일반여성 2,600여명 등 총 8,000여명으로 나타나 있다.

민간도서관 책사랑은 1990년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던 중 창원지역의 주민 참여형 마을도서관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책사랑의 일부는 창원의 대방동의 대방디지털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방동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산에 남아서 계속 활동한 운동가는 마산의 신도시 개발지역인 내서지역에서 푸른내서주민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서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사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 책사랑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선언 이후 억압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자 나타난 책사랑은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적 성향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88년 6월 25일 창립된 책사랑은 설립된 초기 몇 달 동안은 막연히 지역출판문화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운영한 북 카페적 성격이 강하였다.

책사랑은 1988년 말부터 북 카페적 기능을 청산하고 열람기능을 강화하여 민주도서관으로 나아가게 된다. 당시 마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전국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²⁶⁾, 교사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시기라 자연스럽게 책사랑에 진보적 성향을 지닌 이용자들이 모여 들었다.

당시 책사랑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지성이 판을 치고, 무엇이 양서이고 금서인지 혼란스러운 시절에 사상과 지식의 유통구조에 왜곡현상을 타파하자는 책사랑 정신에 따라 새로운 사상과 지식에 대한 요구를 가진 노동자, 학생, 참교육운동 교사 등에게 진보적 사상과 지식의 제공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책사랑이 수행한 또 하나의 역할은 모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안정국이 계속될 즈음 책사랑 나름의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지 않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 얘기를 나누는 쉼터의 역할도 하면서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자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노찾사 공연 2회, 작가와의 만남, 독서학교, 비디오 상영 등 주로 운동성을 지닌 문화활동을 하였으나 당시의 시대상황이 이러한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²⁷⁾

그러나 1992년을 기점으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대선에서 민주세력의 패배 등의 요인으로 진보적인 사상과 지식에 대한 요구가 수그러들면서 책사랑은 새로운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26) 마창지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모아 1987년 12월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건설하고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전개하였다. 그 이후 전노협 건설과 사수의 주역으로서, 민주노총 건설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핵심을 이루어왔다[김하경, 내 사랑 마창노련(상)(갈무리, 1999), p.13].
27) 전세중, “책 사랑이 걸어온 길: 민간도서관 책사랑 10주년을 돌아보며”(자체보고서), 1999. 6. 27.

상황으로 내몰린다. 새로운 사상과 지식의 제공처, 마산의 중심가 남성동에서 지역의 의식 있는 사람들의 사랑방 구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게 된다.

2. 1990년대 : 주민참여형 마을도서관 시기

가. 성립과정의 사회사

주민참여에 의해 마을도서관을 세운 데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지나친 팽창과 민간부문의 위축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그 동안의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은 국토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에 주민자치는 민간부문의 자율역량을 성숙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그간의 높은 양적성장애 비해 주민 삶의 질은 그만큼 향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히 물질적 부의 축적이나 소득의 증가를 넘어선 정신적 차원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역단위의 공동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고 있다.²⁸⁾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의 과밀화로 인해 도시공간의 무질서 문제가, 농촌의 경우는 인구의 과소화에 따른 농촌공간의 저발전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지역마다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 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운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공동체 운동이다. 이 운동은 다양한 마을행사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내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약화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와 자원조직을 매개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운동으로, 저소득층, 청소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운동이다.²⁹⁾

이러한 지역공동체 운동이 1995년 정부의 도·농통합 정책에 따라 마산시에 편입된 내서읍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다. 내서읍은 마산시로 편입되어 논밭이 택지로 바뀌면서 아파트 건립이 잇따랐고 인구가 크게 늘어난 지역이다. 그러나 주거환경은 이를 따르지 못하였다.

이에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내서읍을 맑고, 푸른 마을로 만들기 위해 푸른내서주민회가 조직되어 1998년 10월 25일 감천초등학교에서 창립총회를 하게 된다.

창립당시 푸른내서주민회 회칙 제2조(목적)에 “주민회는 우리 내서지역이 제3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살기 좋은 고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복지

28) 지방자치법 제8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와 삶의 질의 문제는 수단과 목적이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성경룡,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 제이플러스에드, 2006), p.24.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조그만 실천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건설에 목적이 있다.”³⁰⁾ 라고 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푸른내서주민회는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운동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푸른내서주민회는 올해로 창립 10년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진행한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행사로는 푸른내서문화제³¹⁾를 10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푸른내서문화교실 운영, 따뜻한 봄날에 봄나물 캐기대회, 각종 교양강좌와 초청강좌 개최, 광려천사랑 그림·글쓰기 대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마다 광려천 청소하기 등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는 좋은 책 읽어주기, 슬라이드 동화구연, 야외영화제,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아리 모임으로 동화읽는 엄마모임, 풀꽃모임, 풍물패 부뚜막, 내서지역연구회, 등산모임, 어린이예술탄 아릅나라, 어린이 체험학습단, 봉사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다.³²⁾

푸른내서주민회의 지역공동체 운동은 자연스럽게 마을도서관 만들기 운동과 연결된다. 당시 푸른내서주민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송순호³³⁾는 1999년 마산 합성동으로 이전해 있던 민간도서관 책사랑³⁴⁾을 내서지역으로 끌어들인다. 이것이 오늘날 내서마을도서관이 성립된 과정이다.

나. 사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 내서마을도서관

1988년 6월 마산 남성동에서 출발한 민간도서관 책사랑은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 그 일부가 1999년 4월 창원의 디지털대방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방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고, 마산에 남아 있던 민간도서관 책사랑은 동년 6월에 합성2동으로 옮겨 운영하였다.

합성2동의 좁은 공간에 있던 책사랑은 푸른내서주민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송순호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2003년 5월 코오롱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새동지를 튼 후, 2005년 11월 10일 호계리 코오롱아파트 주민복지시설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서마을도서관은 160㎡(48.5평) 규모에 1만 여권의 장서와 48석의 열람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이 도서관이 지향하는 방향은 내서마을도서관을 소개하는 홍보물에 잘 나타나 있다.

30) 푸른내서주민회 창립총회 자료(1998. 10. 25).

31) 제10회 푸른내서문화제가 2008년 8월 17일 - 24일까지 내서지역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내용으로는 광려천 사랑 대청소와 캠페인, 제5회 에너지의 날 행사, 찾아가는 아파트 숲 체험, 찾아가는 문화마당과 환경영화제, 어린이 북아트 특강, 알뜰장터와 체험마당, 마당극 초청공연, 애벌레 여름캠프, 운영기금마련 하루차집과 주점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32) 푸른내서주민회 소개 홍보물 참조.

33) 현재 내서마을도서관 관장으로 있으며, 마산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마산지역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34) 1988년 6월 마산 남성동에서 출발한 진보적 성향의 책사랑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던 중 1999년 6월(일부는 1999년 4월 창원의 대방마을도서관을 새로이 개관) 마산의 합성동으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었다.

도서관 운동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운동입니다. 내서마을도서관은 도서관을 통해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가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구비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산시의 현실 속에서 마을 곳곳에 도서관이 생길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³⁵⁾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내서마을도서관은 지식과 정보공유를 통해 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자료를 구비해 주민들에게 열람과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접 도시인 창원과 김해에 비해 열악한 마산지역의 작은도서관 세우는 일에 진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서마을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운영은 작은도서관 운동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형 마을도서관을 지향하는 내서마을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서 겪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적인 문제이다. 개관이후 지금까지 송순호 관장 혼자 힘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와 있다. 이에 송순호는 “마산시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내서마을도서관의 신규자료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분기별로 50권씩 기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은 마산시에서 연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소장 장서수가 1만권을 넘어서고 있지만 민간도서관 책사랑 시절의 오래된 책들을 물려받아 자료의 참신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3. 2000년대 :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 시기

가. 성립과정의 사회사

작은도서관 운동은 멀게는 1960년대 이래로 마을문고 운동과 맥이 닿아 있으며 가깝게는 1990년대부터 나타난 지역단위의 마을도서관 운동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에서 일상 생활권단위의 소규모 작은도서관 운동에 주목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도서관서비스가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의 주요 서비스로 일찍부터 자리 잡은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서비스는 과거부터 민간영역에서 담당해 비중에 적지 않았다. 도서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운동의 형태로 마을문고 운동이 전개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지역의 소규모 공간들을 통하여 문고,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과 같은 형태의 민

35) 내서마을도서관 소개 홍보물에서 발췌.

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소리 없이 그러나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도서관정책에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작은도서관 진흥이라는 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현재 작은도서관의 건립이나 운영에 대해 설립비 및 리모델링비 일부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과 보급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³⁶⁾

정부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정책이 시작되기 전 민간차원에서 일궈낸 대표적인 작은도서관만들기 지역운동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⁷⁾

먼저 부천시의 사례이다. 현재 부천시에는 11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5년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4개의 시립도서관과 자료공유를 위한 상호대차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부천시에서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부천의 작은도서관은 시민, 시민단체, 기업, 시의원, 언론인, 부천시로 구성된 민간협력조직인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에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도서관 만들기” 지방의제를 실천하기 위해 “2001년 작은도서관 만들기 네트워크 분과”가 설립되면서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부천시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시작되기 10여 년 전인 1993년부터 창원시에서는 지역의 교수, 변호사,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32개 마을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은 창원시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이들 단체에게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2003년 순천 기적의도서관이 세워진 후 순천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대상지역은 시립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자체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지역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중 공간과 자체운영비 부담이 가능한 곳을 작은도서관 설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실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공모하여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용인의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과 같이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뜻이 맞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아이들이 쉽게 찾아와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조성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작은도서관도 있으며, 대전의 ‘모퉁이 어린이도서관’과 같이 한 개인이 순수한 열정으로 작은도서관을 세워 운영하다 이웃 어머니에게 기부하여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결과 2005년 12월 시·군·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문고)의 총수는 2,872개관이다. 이들 문고는 평균 24평 규모, 평균 열람좌석수 24석, 평균 소장

36) 김세훈 외,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 방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p.1.

37) 위의 글, pp.67-70.

장서수 3,287책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⁸⁾

이렇게 민간영역에서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주민들 스스로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를 통해 꾸려나가는 동네 사랑방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독서서비스와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지역 문화강좌 등의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생적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며 전개되었다.

민간차원의 작은도서관 활동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2002년 8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 사업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를 800개관으로 늘려 인구 6만 명당 1개꼴로 증설하며, 동시에 공공도서관마다 2개 정도의 분관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시작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 6월 “문화비전 21 : 창의한국”에서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국내 155개소, 국외 2개소 총 157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다. 이 중 국외 2개소는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가나(단파, 아보코비)에 조성하여 작은도서관 운동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³⁹⁾

2006년 1월 문화관광부의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진흥 T/F가 설치되었다. 이 T/F가 발전하여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편 작은도서관 운동을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전국에 보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MBC,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2007년 9월부터 전개하였다.

그 첫 번째 결실이 국민은행 10억 원, (주)STX 3억 원, 합계 13억 원 후원으로 10개 시·도에 13개소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개소 당 1억 원씩 지원하여, 열람공간, 모임공간, 안내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하는 한편 서가, 도서와 자료, 컴퓨터 등 소요물자를 지원하였다.

국민은행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서울 마포구, 경기 부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전북 완주군, 전남 여주시, 제주 제주시 등 10개 지역이며, (주)STX 후원으로 경남 창원시의 소계민원센터 2층, 경남 진해시의 동진여자중학교, 경남 마산시 경남대학교 평생교육관 1층이 선정되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대학교 평생교육관 1층에 작은도서관이 2008년 5월 21일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38) 위의 글, p.28.

39) 2007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내역. <<http://www.nl.go.kr/sml/>>.

2008년도에는 기업후원과 별도로 문예진흥기금 50억 원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47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강원 횡성, 전북 전주, 경북 영양 등 3곳은 소외지역에 새로이 건립되며, 소외지역에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곳 10개소를 포함하여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작은도서관 44개소가 선정되었다.

2008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특징은 주제별특성화 도서관으로 시범조성(예, 안산 다문화도서관, 강릉 영어도서관, 전주 점자도서관), 주민의 참여 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며, 지자체 청사(예, 강릉시 청사, 금천구청, 전라북도 청사)를 작은도서관 공간활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경남대 작은도서관은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도서관 사업이 정부차원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확충되면서 기업후원으로 설립되고, 향후 마산시의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될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이다.

나. 사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 경남대학교 작은도서관

경남대 작은도서관은 2008년 5월 21일 마산시 대내동 1번지 경남대학교 평생교육관 1층에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시행하고 MBC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공동 전개한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결실로 조성된 “고맙습니다 경남대 작은도서관”이(주)STX의 후원으로 개관하게 되었으며, 마산시의 도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⁴¹⁾

이 도서관은 경남대 중앙도서관에서 2007년 12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신청을 하여 2008년 2월 선정되었으며, 조성사업 지원금 1억 원을 지원받아 경남대학교 캠퍼스 밖에 위치한 평생교육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다.

경남대 작은도서관의 면적 173㎡(52.4평)에 도서 4,162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공간구성은 회의, 토론, 소규모 강의, 문화활동, 발표회, 학생회모임 등을 위한 다목적코너, 독서상담과 도서관 카페 등을 위한 독서상담코너,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코너, 자료복사와 프린트를 위한 복사와 프린트서비스 코너, 학습공간인 열람코너, 실무자를 위한 업무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도서관 운영은 경남대 중앙도서관에서 분관형태로 운영하며, 중앙도서관에서 2명의 인력을 교대로 파견하여 평일은 13:00 - 21:00, 토요일은 13:00 - 17: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독서동아리, 독서세미나, 어머니독서회, 일일독서교실, 독서토론회 등이 준비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자 그룹도 준비 중에 있다.⁴²⁾

40) 2008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내역. <<http://www.nl.go.kr/sml/>>.

41) “고맙습니다 경남대 작은도서관” TKS - Library 이용정보.

42) 경남대 작은도서관은 금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프로그램은 준비 중에 있다.

도서관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경찰서 등이 가까이 있으며, 도서관이 위치한 신마산 지역은 1만여 세대에 3만 여명의 상주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경남대 평생교육원 수강생과 특수대학원 재학생들에게도 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경남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만남과 휴식이 있는 지역의 사랑방,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나눔의 공간,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학습공간, 소모임이나 소규모 강의, 회의, 발표 등을 할 수 다목적 활용공간, 독서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지역사회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1일 평균 40-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

IV. 작은도서관 운동의 방향

1. 작은도서관 현황분석

마산지역 작은도서관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작은도서관 현황

구분	명 칭	위 치	연면적(㎡)	열람석(석)	도서(책)	개관일	비고
공 립	하늘채문화의집	내서 호계리	-	-	-	06.5.26	
	회원1동문고	회원1동	99	20	2,300	03.2.14	
	회성동문고	회성동	50	15	1,200	05.3.04	
	구암2동문고	구암2동	165	30	5,500	04.6.04	
	석전2동문고	석전2동	56	20	2,365	92.12.1	
사	내서마을도서관	내서 호계리	160	48	10,366	95.6.14	
	충일문고	구암1동	150	16	2,500	97.2.27	
	새날문고	내서 중리	35	19	1,060	02.8.17	
	한우리독서문화원	해운동 두산아파트	83	10	1,200	04.03.1	
	아가페문고	산호동	380	25	1,500	05.3.24	
	정금문고	내서 중리	36	15	1,000	06.6.23	
	늘푸른문고	대창동	72	20	1,010	07.8.24	
	꿈나무도서관	봉암동	129	20	1,000	07.12.17	
	slc지역아동문고	중앙동	129	15	1,200	08.2.13	
	한솔문고	회원 1동	94	10	1,000	08.3.24	
립	영재문고	회성동	245	30	1,000	08.4.1	
	초화문고	합성1동	82	8	1,000	08.4.8	
	행복한문고	석전동	50	10	1,000	08.4.15	
	솔향책마루문고	자산동	-	-	-	08.4.8	

새 마 을	가우스문고	산호동	13	15	1,000	08.5.23	
	경남대작은도서관	대내동	173	16	4,200	08.5.21	
	양덕2동문고	양덕동	17	5	500	02.03.1	
	합성1동문고	합성동	66	10	1,350	93.04.1	
	내서새마을문고	내서읍 중리	39	5	4,500	08.3.12	
	구암1동새마을문고	구암1동	38	20	1,000	08.3.17	

마산지역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마산시에서 운영하는 합포도서관, 회원도서관, 내서도서관과, 마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산도서관과 진동도서관 등 5개관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등에 부설된 공립문고 5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립문고 16개, 새마을문고 4개, 모두 25개의 작은도서관이 마산시에 등록되어 있다.

이들 25개 작은도서관의 평균 규모는 102.7㎡(31평), 좌석수는 17.5석, 장서수는 2,120권을 소장하고 있고, 사서자격증 소지한 실무자는 한 사람도 없다.⁴³⁾

문화관광부에서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한 규모와 비교해보면, 대략 30평 내지 40평 이상의 시설규모에 3,000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립문고로 구암2동 문고 하나뿐이며, 사립문고로 내서마을도서관, 경남대 작은도서관 2곳 뿐이다.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한 곳도 이 기준에 도달하는 곳이 없다.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첫째, 기본시설이 영세하다. 작은도서관 운동을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한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의 성과로(주)STX의 재정지원으로 설립한 경남대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기본시설과 공간구성이 열악한 편이다. 다만 내서마을도서관과 구암2동 문고는 작은도서관이 지향하는 공간규모와 장서를 갖추고 있지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문화, 정보를 위한 마을사랑방 구실을 위한 공간구성은 열악한 형편이다.

둘째, 장서와 예산의 문제이다. 장서가 3,000권 이상 소장하고 있는 곳은 구암2동 문고, 내서마을도서관, 내서새마을문고, 경남대 작은도서관 뿐이다. 인근 창원지역의 마을도서관은 창원시의 재정지원으로 매월 자료구입비가 1개관 당 30만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마산시의 경우 작은도서관 어느 곳도 마산시의 계획된 예산으로 장서를 구입하는 곳은 없었으며, 다만 내서마을도서관과 하늘채 문화의집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서인력의 문제이다. 마산시의 작은도서관 중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곳은 전무하였다. 대부분 자원봉사자나 비정규직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내서마을도서관은 상

43) 마산지역의 문고현황에 대한 자료는 마산시청의 문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근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남대 작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2명의 인력을 교대로 파견 근무케 하고 있다.

넷째, 민간협력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근 창원지역에는 작은도서관 세우는 일에 오래전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창원시가 서로 협력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린 모델이 있으며, 최근 김해지역에서도 “책읽는 도시, 김해만들기” 프로젝트가 김해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민간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산지역에는 이러한 모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작은도서관의 개념정립

중앙정부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인근 김해시는 2008년 6월 23일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마산시도 “마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마산시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⁴⁴⁾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정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 작은도서관은 운동가나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관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 추진해 왔다. 이들 작은도서관의 공통된 정신은 지역사회 공동체형성, 지역문화의 발전, 지식평등화를 통한 계층양극화의 해소 등, 단순히 시설이나 형태 이전에 어떤 이념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나 문고 같은 ‘시설’ 개념이 아닌 ‘운동’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준은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동을 의미하여, 특별한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는 일정한 취지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젝트(사업명)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김소희는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나 문고 같은 시설개념이 아닌 운동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즉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운동이며 이러한 취지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은 공사립문고,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어린이도서관, 심지어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나 분관 등 명칭구분과 관계없이 작은도서관이며, 적은도서관은 운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⁴⁶⁾

두 사람의 작은도서관 정의는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동이다”라는 이념적인 정의를 내리

44) 내서마을도서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래동안 지역운동을 해 온 송순호 마산시 의원의 발의로 마산시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45) 김준, 앞의 글, pp.34-35.

46) 김소희,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서울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2007), p.19.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립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이란 용어대신에 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4.가.에 문고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비영리독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 3조 관련 [별표 1]의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서는 건물면적 33㎡(10평) 이상, 좌석수 6석 이상, 자료수 1,000권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김해시 의회에서 통과된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정의) 1.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평생학습공간으로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⁴⁷⁾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는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라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시설규모, 장서규모, 열람석규모, 운영프

47) 제4조부터 제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2.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새마을문고,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5조(구조 및 설비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8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해당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일조, 채광, 환기가 잘 되는 구조일 것
2. 화재,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기 및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소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것

제6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사업
4.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독서 장려사업
5. 어린이의 독서습관 정립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제7조(도서 비치) ① 작은도서관에는 3천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매년 신규 자료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서는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로그래, 상근인력에 대한 기본개념이 구체화 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마산시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으로, 공간규모 30평 이상, 장서규모 3,000권 이상, 연간증가 300권 이상,⁴⁸⁾ 열람석 규모 15석 이상, 상시 운영프로그램 5개 이상, 상근자 1명 이상을 갖추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시설, 자료와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하여 문고가 발전된 도서관으로 정의함이 바람직해 보인다.⁴⁹⁾

3. 작은도서관 운동의 이념정립

마산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을 위한 정보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고, 운영자 개인이나 단체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큰 도서관과 달리 규모는 작아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알찬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산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성립을 위한 운동가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미미한 채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에 작은도서관 운동의 확산을 위한 이념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첫째, 작은도서관은 우리동네 도서관이어야 한다. 도서관 규모는 작아도 우리생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접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마을교사가 존재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셋째, 작은도서관은 그 도서관이 터하고 있는 지역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어야 한다.

넷째, 작은도서관 운동은 지역공동체 문화를 일구는 ‘좋은 마을만들기 운동’⁵¹⁾이어야 한다.

다섯째, 작은도서관 운동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 이념을 이루는 데는 도서관 시설의 현대화, 법과 제도의 정비와 재정의 확보보다 우선되어야

48) 작은도서관일수록 연간증가 장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이 요구하는 신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소생활권 단위의 생활친화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9)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규모를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면, 기존의 작은도서관 운동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생활친화적인 공간, 문화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나름의 특성이 약화시킬 소지가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기존 작은도서관의 운동성을 담아내야 운동의 지속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운영 등의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해 보인다.

50) 작은도서관 운동의 이념 방향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김소희,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서울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2007), pp.14-25.

51) 좋은 마을만들기란 마을의 생활환경을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가꾸는 일이며, 이웃과의 단절된 문화를 회복하는 주민조직을 만드는 일이며, 책임감 있고 자격있는 건강한 마을사람을 기르는 일을 말한다.

할 것이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의 문제이다. 과거 마산지역에는 이런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운동가들이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 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지금은 내서마을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송순호 마산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수만 남아 있을 뿐이다.

4. 제도의 정비와 재원확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이념을 담아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등 지방화·분권화를 강조하는 조항이 있으며,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현행 도서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44조(지식정보격차의 해소) 두 조항으로 보여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의 해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도서관서비스의 편차가 있어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정보접근 평등성 문제와 도서관서비스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이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를 조례제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에 담은 내용으로는, ① 목적, ② 작은도서관의 정의, ③ 작은도서관의 기능, ④ 자치단체의 책무, ⑤ 설비 및 자료기준, ⑥ 운영일반, ⑦ 운영의 위탁 및 운영비 지원, ⑧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산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조례제정과 함께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설립과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가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각종기금을 활용하거나, 기업모금, 개인이나 단체의 재원도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작은도서관 기본요건을 갖춘 도서관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에 대한 문제도 조례에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 창원시의 경우 평생학습과에서 마을도서관 업무를 겸무하고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도서관운영과란 독립부서를 두어 작은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시의 경우 작은도서관 업무는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사의 직무 중 하나로 분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5.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소통을 위한 연합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우선은 운영주체들끼리 작은도서관 협의체를 구성 하는 것이 상호 간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다.

다음은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실무자들끼리 정기모임을 가지며,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자와 봉사자를 자체교육 하는 일이다.

운영자와 봉사자간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나면 협의체에서는 책문화축제와 같은 연합행사를 주관할 업무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이 작은도서관간의 자료공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자료공유를 위한 협력관계를 논의할 단계이다.

이 단계가 되면 공립형 작은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자연스럽게 편입이 가능해진다. 사립형 작은도서관은 지역공공도서관과 자료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는 구축하되 작은도서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작은도서관은 기존 공공도서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공동체 운동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마산지역에는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초보단계인 작은도서관 운영자 상호 소통을 위한 연합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조례제정 운동과 함께 작은도서관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마산지역은 일제시대에는 반외세 투쟁, 해방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마산의 3·15의 거,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을 타도한 부마항쟁,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선언을 이끌어 낸 1986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그 결과 일찍부터 학생운동, 노동운동, 참교육운동, 학부모운동 등이 발달하였으며,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이들 진보적 운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제공처로 민간도서관 책사랑이 성립되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고 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한 사회로 변화되면서 주민참여형 마을도서관인 내서마을도서관이 1990년대 말 성립되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작은도서관 운동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차원의 작은도서관 진흥정책을 펼치면서 (주)STX후원으로 2008년 민관협력형인 경남대 작은도서관이 성립되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엄대섭은 ‘농어촌마을문고보급회’를 만들어 도서관이 국민생활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사재를 털어 전국의 농어촌을 위한 마을문고 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을문고 운동은 열악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주도적 풀뿌리운동으로 지역사회 최전방에서 전개된 민간영역의 독서운동이었다. 1974년 마을문고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만5천개나 설치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81년 군사정부에 의해 새마을운동 체제에 흡수되어 새마을문고가 되었다. 행정의 힘을 빌려 생겨난 새마을문고는 그 뒤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작은도서관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 6월 “문화비전 21 : 창의한국”에서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하였다. 향후 읍, 면, 동 등 소생활권 단위로 많은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건물을 세우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이 공간에 내용을 담아내는 지속가능한 운동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는 주민운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주민운동은 그 성격에 따라 세 단계로 발전과정을 유형화할 수 있겠다. 52)

첫 번째 단계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에 대해 그 해결을 요구하는 요구형 운동이다. 이 운동은 주민운동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들의 고유한 이해를 넘어서서 주민일반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적 성격을 갖는 대안제시형 혹은 시민대변형 운동이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운동과 이를 위한 대안적 정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세 번째 단계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지역을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운동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마을과 생활을 창조해 가는 운동이다. 이 유형은 매우 높은 수준의 주민의식이 필요한 주민운동이다.

작은도서관 운동은 세 번째 단계의 운동으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지역공동체문화’를 실현하는 운동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양체계와 지식체계를 넓히고, 인간이 존중되고 지적문화가 설 땅을 찾도록 하는 데 작은도서관을 세워 운영하자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52) 이호, “변화하는 도시사회의 주민운동,”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서울 : 발언, 1996), pp.287-289.

지역주민이 주체로 일어나 주민운동 차원에서 끌어 나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유형의 작은도서관 운동인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 운동”이 이 땅에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